

“밴쿠버로 기수 돌려라” 60대 한인 기내 난동, 난투극



지난 24일 인천발 시애틀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60대 한인은 콜로라도 거주 남성 이모씨였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밴쿠버로 기수를 돌려라”며 조종석 침입을 시도하다가 제지하는 승객들과 난투극을 벌였다.

시애틀타임스는 이씨의 난동지지에 나섰던 승객진 파렌테씨와의 인터뷰

를 통해 당시 기내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전말을 전했다. 파렌테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다가 9.11테러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조종석 난입을 시도하면서 밴쿠버로 기수를 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를 본 승객이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씨는 착륙 한 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날카로운 머리핀으로 승무원들을 위협했다.

이씨는 조종석 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고 시도했고, 당시 남자 승무원은 그를 제지하려다가 실패했다.

파렌테씨는 “이씨는 키가 6피트 정도로 건장했고, 승무원은 체구가 작아 제지가 거의 불가능했다”며 “힘에 부친 승무원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예비 조종사 2명까지 가세해 이씨를 제압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씨는 시애틀 경찰에 체포됐다.

개인보호장비 고가판매 시정 안한 업체에 1천5백불 벌금



개인 보호 장비 (PPE)를 팔아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켈거리 한 판매 회사가 1천5백불의 벌금을 물게됐다.

29일 스티븐 존스턴 검사에 따르면 CCA 로지스틱이 지난 3월 26일 개인보호장비를 너무 비싸게 팔고 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 후 히더 라모레스 주법원 판사로 부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 소비자가 마스크 패키지와 같은 PPE가 89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뒤 검찰 고위 수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했고 그는 CCA가 팬데믹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CCA 로지스틱스는 가격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4월 24일 잠복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여전히 부풀어진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케니 주지사도 당시 팬데믹

을 이용해 마스트 등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CA로지스틱스는 당시 제품의 시장 가격이 급등했고 회사가 판매한 가격은 eBay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유사했다고 해명했다.

라모레스 판사도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사 변호사는 덧붙였다.

로봇이 주문받고 서브하는 켈거리 중국집 등장



중국 전통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켈거리 레스토랑이 지난 주말에 로봇 웨이터와 함께 그랜드 오픈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와중에 새로 문을 연 Clay Pot Rice 레스토랑에 도착하면 로봇이 고객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는다. 주문 후 두 번째 로봇이 배고픈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온다.

“완전히 새로운 컨셉이죠.” 매니저 에이 셴이 말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특히 팬데믹 한가운데서 음식을 서브하는 로봇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 레스토랑의 주인인 알렉스 구오는 Macleod Trail South의 현재 장소

에서 해산물 레스토랑을 운영했지만 내륙인 켈거리에서 해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인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우행 이전에 중국에서 로봇을 수입하기로 했다.

“제조업체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고객에게서 주문을 받고 고객과 대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리는 전통 질그릇으로 구운 새로운 레스토랑은 질그릇 (CLAY POT)으로 음식을 준비한다. 중국 남부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요리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전 세계의 노점상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로오는 새로 개업해 주

방일로 눈코 뜰새없이 바빠 로봇 사용법을 익힐 시간이 별로 없지만 로봇 웨이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로봇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Clay Pot Rice에서는 기본적으로 바삭한 쌀밥으로 시작하여 요리가 만들어지는데 캐나다 입맛에 맞는 다양한 토핑을 갖추고 있다.

“다른 나라로 이주 할 때 문화를 잃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매니저 에이 셴은 말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것을 확실히 소개하고 싶다는 소명감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셴은 레스토랑 오픈을 도왔고 새로운 메뉴 시식과 직원 채용에도 참여했지만 로봇을 부리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조금씩 더 로봇 웨이터와 친숙해지고 있다.

이 레스토랑은 지난 금요일 첫 손님을 맞이했으며 그랜드 오픈은 주말까지 계속된다.

캐나다,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10월31일까지 유지



새 이민자 유입은 허용

연장된다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광 또는 방문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캐나다의 입국금지 조치가 10월31일까지 또 다시 연장된다고 29일 연방정부가 밝혔다. 그러나 새 이민자들은 계속 받아들일 계획이다.

지난 3월18일 도입된 이 조치는 당초 6월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 추세가 가라앉지 않아 이미 수차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및 미국 시민권자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확진 곡선을 통제하는데 성공했으나 감염케이스가 8월들어 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적지만 새 이민자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3

월18일 이전 이민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금지조치와 상관없이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연방정부는 10월 30일 이전까지 ‘2021~2023년 이민정책’을 공개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이민쿼터등에 향배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최근 마르코 멘디시오 연방이민장관은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도 경제 회복을 부추기기 위해 새 이민자유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민문화 개방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바 있다.

멘디시오 장관은 “해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한 급행이민(EE)와 주정부 지정 이민프로그램(PNP) 등을 최대한 정상 수준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원어민 영어회화 레슨

ENGLISH CLASS
원어민 영어

esl2019canada@gmail.com
Tel : 403-891-3162 / 403-264-4426

LYM VIOLIN LESSON

대입실기 지도/ 영재 스키 교육
West Kesington Tel : 403-689-6485

북/ 장구/ 아쟁/ 징
한국전통예술 레슨

Korean Art Club Tel: 403-510-8077

PIANO LESSON

어린이 조기 교육 전문
Calgary NE

일러스트레이트 / 인디디자인
개인 레슨

Ai Id
Tel : 587-664-1042

코딩 스쿨

COODING BUDDIES
Tel: 403-422-1622

골프 레슨
Beddington Golf
Tel : 403-686-2171

유튜브 제작 실기

셋업부터 올리기까지
Tel:403-926-3890

You Tube

현 화실

Tel (403) 861-9290